

## 요약

- ▶ **건설산업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성장 엔진으로 현 정부의 창조경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창조경제를 현 정부의 정책 기조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닌 건설산업 도약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 ▶ **창조경제에서 강조하고 있는 정부의 각종 전략을 해석해보면 건설산업에서 오랫동안 고민해 왔던 분야임을 알 수 있음.**
  - 혁신과 개선 대상 자체보다는 달성 방법과 주체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으며, 나열식의 통합, 연계 등이 아닌 실질적인 융합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은 깊이 새겨볼 만한 대목임.
- ▶ **건설산업 역시 여러 분야의 융합 사례를 가지고 있지만, 그동안은 수요와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융합에 대처해 왔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창조경제형 건설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외부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뿐만 아니라 자생적 융합 모델을 발굴하여 선도하는 생산구조의 모습을 가져야 할 것임.
- ▶ **창조경제형 건설산업을 위한 주요 전략 방향은 다음과 같음.**
  - 향후 창조형 사업은 단순 도급사업이 아닌 복합 비즈니스형 산업으로 추진될 것이기 때문에 기업, 정부, 그리고 사용자가 모두 참여하는 추진 형태가 요구됨.
  - 에너지, 물류, 조선, 전자/정보통신 등의 산업간 융합 사업 적극 추진
  - 건설 생애주기 프로세스의 단축과 융합을 위한 발주 방식, 첨단 설계 및 모듈 시공 기술 등의 도입, 그리고 정보화 기술의 전향적 활용 필요
  - 설계와 시공에 첨단 기술을 즉각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정책/제도/기준의 혁신이 요구되며, 특정 부처가 아닌 범정부적 일괄 해결 노력이 필요
  - 투자 활성화를 위한 관련 규제 해소를 위한 민관 협력이 필요하며, 제도는 현재의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함.
  - 현 기술 개발 체계를 R&D와 현장 적용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함.
  - 새롭게 부각되는 사업 방식과 시장에 따라 기업의 조직 역시 자연스럽게 외부 수요에 맞게 변화되어야 함. 이를 지원할 인재 교육 및 양성 체계도 변화해야 함.
  - 도시 재생은 창조경제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음. 도시들에 스마트 인텔리전스 기술과 환경 친화적 기술을 적용하여 비용 절감과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해외건설에서 양적/질적 성장을 모두를 이루기 위해서는 1) PPP사업 등 투자 사업의 창출과 2)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시장으로의 진출 등을 추진해야 함.
  - 향후 은퇴 시기가 급격히 도래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와 현재의 잃어버린 세대 간 지식과 경험의 단절을 막기 위하여 우수한 청년층의 산업 내 진입과 관련한 승계 전략을 마련하여야 함.

##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국내 건설시장은 2009년 153조원이었던 건설 투자 규모가 4년 연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당분간 이러한 경향은 계속될 것으로 판단됨. 내수시장 투자 감소의 유일한 대체 시장인 해외 건설 역시 각종 리스크 증가로 매우 도전적인 시장으로 변하고 있음.
- 건설시장의 더 큰 위기감은 성장 엔진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임. 해외에서 평가하는 국내 건설시장의 전망은 다음과 같음. 세계적 경제전망기관인 Oxford Economics는 각국 건설시장의 성장을 가늠하는 잣대로 1) 인구 성장률, 2) 도시화율, 3) 경제성장률을 대표적인 기준으로 활용
  - 우리나라의 출산율(가구당 1.2명)은 OECD 최저 수준이며, 도시화율은 85.4%(OECD 기준)으로 일본과 미국보다 높은 수준이며, 경제 성장률 역시 지난 10년간 계속 낮아지고 있는 실정임.
  - 그 결과 전 세계 건설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기준 2%에서 2020년 2% 이하로 주요 순위에서 탈락될 것으로 전망<sup>1)</sup>
- 아울러 국내 건설산업은 다음과 같은 환경 변화를 겪고 있음.
  - 공공 재정·도급 중심의 국내 건설 경제의 변화 시기에 도달함.
  - 타인 의존과 수동적 경영에서 자립 및 능동적 경영으로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음.
  - 민간자본·민간시장 활성화가 예고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창의력에 기반한 신상품과 신시장이 주도할 가능성이 높음.
  - 선(先)수요·후(後)공급의 개념에서 선공급을 통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야 하는 시대를 맞고 있음.
- 한편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건설산업의 이미지는 더욱 악화되고 있음. 부정, 부패, 담합, 약자 배려 등에서 가장 문제가 있는 산업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기술 혁신 등을 통한 글로벌 모범 사례와 창의적 일자리를 보여주는 것에는 성공하지 못함.

<sup>1)</sup> Global Construction 2020 : A global forecast for the construction industry over the next decade to 2020, Global Construction Perspectives, Oxford Economics, 2011, 3, pp.18~25.